

-잖아요

상기·확인 — 알다시피 ~잖아요

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. 유용하고 매우 자주 쓰이지만 날이 서 있는 표현이라, 잘못된 상대방에게 쓰면 실례가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 잖아요	있다 → 있잖아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 잖아요	만들다 → 만들잖아요
과거	- 았/었 잖아요	갔잖아요
이다	- (이) 잖아요	학생 이 잖아요
반말	- 잖아	있 잖아
쓰지 않는 경우	새로운 정보	대신 -거든요 사용

■ 언제 쓰나요

-잖아요는 어떤 어간에나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시제는 앞에 붙입니다: 갔잖아요, 좋았잖아요.

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며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떠올리도록 요구합니다: 어제 말했잖아요 (어제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).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전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. 듣는 사람이 미리 알 수 없었던 내용이라면 이 어미는 틀린 선택입니다.

날이 서는 이유는 ‘상기시키기’ 때문입니다. 말투에 따라 친근한 느낌부터 확연히 답답해하는 느낌까지 다양하며, 뒷사람에게 쓰면 상사의 말을 바로잡는 것처럼 들립니다. 뒷사람에게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거나 -지요?를 대신 쓰세요.

맞춤법 참고: **잖**이요가 맞고, **자**나요는 틀립니다.

■ 예문

- 1 **어제** 제가 말했**잖**아요.
- 2 **오늘** 일요일**이**잖**아**요. 은행 문 닫았**어**요.
- 3 **그** 사람 **한국어** 잘하**잖**아요.
- 4 **저** **매운** 거 못 먹**잖**아요.
- 5 **지난주**에 같이 갔**잖**아요.
- 6 있**잖**아요, 부탁이 하나 있**는**데요.

■ 비교

-지요?
둘 다 서로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, -지요?는 동의를 구하고 -잖아요는 그것을 단정합니다. 뒷사람에게는 -지요?가 더 안전합니다.
비가 오**지요**? (비가 오**조**, 그렇**죠**?) / 비가 오**잖**아요. (보**다**시피 비가 오**잖**아요)

-거든요
정보의 측면에서 정반대입니다. -거든요는 듣는 사람이 몰랐던 이유를 알려 주고, -잖아요는 알고 있던 이유를 상기시킵니다.
오늘 바쁘**거든요**. (실은 바쁘**다**) / 오늘 바쁘**잖**아요. (오늘 바쁘**는** 거 알**잖**아요)

-(으)ㄴ/는데
-는데는 화제를 부드럽게 꺼내고, -잖아요는 이미 아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밀어붙입니다. 부탁할 때는 -는데가 훨씬 부드럽습니다.
시간 없**는**데요. (시간이 좀 부족**한**데요...) / 시간 없**잖**아요. (시간 없**는** 거 뻔하**잖**아요)

■ 주의

- ✗ 부장님, 회의가 세 시**잖**아요.
- 부장님, 회의가 세 시**입**니다.
뒷사람에게 사실을 상기시키면 바로잡는 것처럼 들립니다. 그대로 말하거나 -지요?로 부드럽게 하세요.
- ✗ 제가 어제 부산에 갔**잖**아요. — 듣는 사람이 몰랐던 경우
- 제가 어제 부산에 갔**거**든요.
-잖아요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라면 -거든요를 쓰세요.
- ✗ 어제 말했**자**나요.
- 어제 말했**잖**아요.
맞춤법은 **잖**이요입니다. **자**나요는 발음대로 적은 것으로 표준이 아닙니다.